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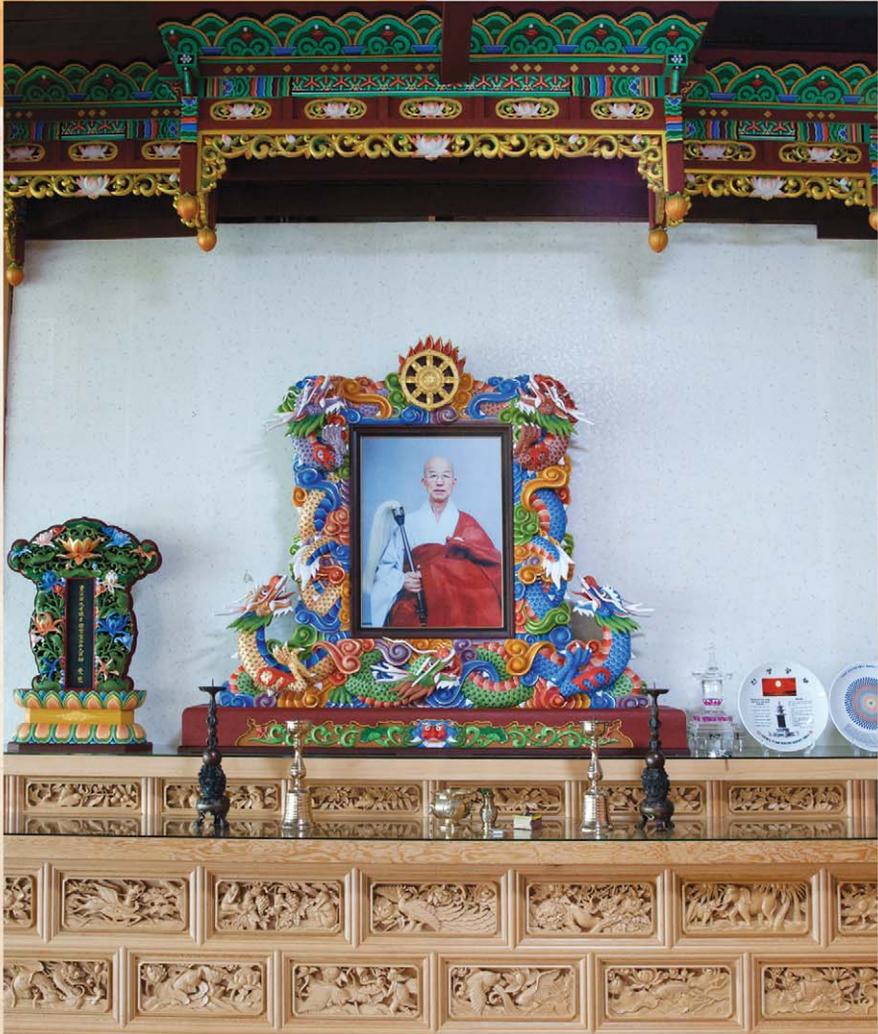
2013. 5 | Vol. 228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원공당 정무 대종사 각령단[覺靈壇]을 모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이자 원로의원이신 원공당 정무 큰스님은 법왕사의 회주로 주석하시다가 지난 2011년 입적하셨습니다. 큰스님은 한국 현대 선불교의 대표적 선사이신 전강스님의 법맥을 이르고 이를 법왕사에 전해주신 분입니다.

법왕사에서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정법 수행 풍토를 드느니고자 큰스님의 각령단을 사리함 봉안과 함께 본당에 조성하였습니다. 각령이란 입적하신 고승의 혼령(魂靈)을 높여 이르는 말로 각령단이란 스님의 진영을 봉안하여 단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참배 바랍니다.



- 04** 깨침의 향기
지극정성이면
깨달음도 어렵지 않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슬산방
초파일에 다시 생각한다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인고의 세월을 건너낸 조선 불교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Ⅱ
비로자나불 모신 전각은 ‘정각의 세계’ 상징 · 조명래
- 20** 명찰순례
불교 성지로 재탄생한 천년고찰, 건봉사
- 24** 특집 / 부처님 오신날
하나의 등불로 무명의 세계 밝힌다
- 26** 법왕사소식
- 28** 법왕사게시판
- 31** 해오름소식
- 32**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수성 라 00017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57(서기 2013)년 05월 01일 발행 | 통권_228호 | 종무소_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유, 강선옥, 고재일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극정성이면 깨달음도 어렵지 않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자기도 옳고 남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행복해집니다.

부처님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광명(光明)’입니다.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캄캄한 것이 아닙니다. 환희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들이 ‘최고의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대로(大路)입니다. 절대 좁은 길이 아닙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개도(開道)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은 어찌하여 비좁은 길로, 어두운 곳으로 가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 인간 세계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입니까.

불자 여러분, “부처님이시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부처님께서는 일언지하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유정법(無有定法)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정한 법이 있지 않음이 곧 바른 법이라고 말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법이 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무유정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물입니다. 물의 모양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담는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나누어야 물로서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법(法)이라는 한자를 보면 물수(水)자 옆에 갈 거(去)자가 있습니다. 즉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지식이 모두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 통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맞다

고 주장해서도 안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스스로 체험해 봐서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비난거리, 책망거리는 나쁜 짓입니다. 어떤 행동을 한 뒤 그 일이 남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나쁜 짓입니다. 그런 일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자기도 옳고 남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행복해집니다.

백고좌법회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법문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천 못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딱 비우고 날마다 초발심(初發心)으로 법문을 듣는다면 불교대학 열 번 졸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루지 못할 법이 없고 고치지 못할 병도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보면 ‘지극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 마음 지극 정성이면 미친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도 방심하면 미치광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모든 것이 정성 성(誠)자 하나로 귀결됩니다. 즉 말 한 것을 실천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근본핵심도 바로 정성 성(誠)자입니다.

또 하나, 우리 불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의심하는 바는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문을 듣



다가 의심이 되는 것이 있거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선각자나 선지식, 선배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심을 완전히 소화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안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잘못된 생각,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백팔번뇌라고 합니다.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이라고 살기는 진천이 좋고 죽어서는 용인에 묻히는 게 좋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살 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불교에서 백팔번뇌(百八煩惱)라는 것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온갖 번뇌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 등 육근이 있습

니다. 즉 감각기간인 눈, 귀, 코, 혀, 몸,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근은 절대 그냥 인식이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중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섯 가지, 즉 색(色), 성(聲), 향(香), 미(味), 촉(觸), 법(法) 등 육진(六塵)이 있어야만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육근이 육진을 접촉할 때 각각 좋고(好), 나쁘고(惡), 좋지도 싫지도 않는(平等) 세 가지의 인식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6 \times 3 = 18$ 의 십팔번뇌가 됩니다. 또 호, 오, 평등에 의거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이 생기거나(樂受), 괴롭고 언짢은 마음이 생기거나(苦受),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상태(捨受) 즉 삼수(三受)가 생깁니다. 이 고, 낙, 사수의 삼수를 육식(六識)에 곱하면 역시 십팔번뇌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생긴 36종의 번뇌에 과거, 현재, 미래 등 3세를 곱하면 모두 108이 되는 것입니다.

초파일에 다시 생각한다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다.
삼계 모두 괴로워 하니 내 이를 편안
케 하리.
처음 세상에 태어 났을 때
짜할 이 없는 부처와 같았네.
스스로 나고 죽는 근본을 보아
이 몸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리.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557년 전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시어 최초로

남긴 사자후 범문입니다.

오른손은 하늘 위로 가리키고 왼손
은 땅 아래를 가리키면서 탄생계(誕
生偈)를 읊고 일곱 발자욱을 떼어놓
는 모습이 바로 탄생불 아기 부처의
형상입니다.

‘나 홀로 높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
까? 번뇌 망상의 차별 세계에서는 좋
다, 나쁘다, 예쁘다, 밍다 하는 상대
평가가 기준이 되지만 평등세계에서
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홀로 높은’
절대 진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
다. 따라서 ‘나 홀로 높다’라는 말은
진리 자체인 부처님의 경지를 가리켜
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뚜렷히 우뚝하
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바로 ‘나 홀로
높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바
세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

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수행에 의해 얻은 깨달음을 통해 붓다라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못 중생들이 부처님을 본받아 온전한 인간상을 구현하도록 교화(教化)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매한 중생을 위해 연기(緣起)의 깨달음을 말씀하셨습니다.

●● 깨달음은 또한 어떤 도사가 되는 것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술사(術士)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초인적(超越的) 인간(人間)도 아니며 전능자(全能者)도 아닙니다. 붓다는 그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간의 표상이며 우리의 스승인 것입니다.

초과일에 즈음하여 거리에서나, 신문, 잡지에서, ‘중생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표현도, 법당에서 부처님을 절대적 대상으로 하여 소원만을 비는 행위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초과일이 한낱 구원의 꿈이나, 소원성취의 날로 전락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또 부처님을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고 합니다. 전륜성왕은 이

름 그대로 바퀴(輪寶)를 굴리는 왕으로 정의(正義)와 자비(慈悲)의 정치를 펴 태평성세를 이루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며, 참으로 평등하게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생명체를 키워내는 태양은 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은 바로 법의 바퀴를 굴려 우리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세상에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결국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해탈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윤회(輪廻)를 극복하는 길, 깨달음의 길, 해탈(解脫)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났기에 해탈이며 궁극적인 경지를 얻었기에 열반(涅槃)이라 하는 것입니다. 윤회, 이것은 바로 중생 세계의 모습이며 우리들은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과일을 맞아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일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의 방법과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날이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조선 불교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사람의 생각은 어디에나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자기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있어서도 자기는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랑스러운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된다. <상응부경전>



조선의 이성계 심복들은 권력을 잡고자 죄 없는 무수한 이들을 해치는 등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특히 전(前) 왕조의 왕씨(王氏) 성을 가진 지배계급들은 그들의 만행에 몹시 불안에 떨었다. 이들을 두고 이성계 심복들은 조선이 개국하기 2년 전인 1391년 4월, ‘강화도로 이주하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며 강제로 모이게 한 수 많은 왕씨들을 수척의 배에 나눠 싣고 섬으로 향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자, 미리 준비한 대로 배 밑에 구멍을 내어

가라앉혀 몰살시키고선, 민심이 흥흥해지자 “하늘의 뜻인지 바다에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 배가 전복되었다”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는 당치도 않은 거짓말로 덮어버렸다. 그때의 참사는 칼자루를 쥐고 그들의 손으로 쓰인 ‘왕조실록’에 들어 있을 리 없지만 역사의 진실마저 속일 수 없는, 이는 엄연히 전해지는 사실이다.

배불정책은 비이성적 행위

뿐만 아니라 유학은 인(仁)·의(義)를 행실의 덕목으로 여긴다면, 출

세와 부귀를 위한 이해득실을 좇아, 해가 되면 형제, 친족, 지기(知己)를 가리지 않고 참혹하게 죽여 버린 빈번한 예 가운데 하나가 1399년(태조 7)에 일어난 것이 ‘왕자의 난’이다. 왕자의 난은 이성계의 둘째 아들인 이방원이, 왕후 계비 신씨의 소생이자 어린 이복 동생 방석을 부왕이 왕세자로 책봉함에 격분하여 방석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을 무참히 살해했는가 하면, 부왕의 최측근이며 자신이 숙부라고 부르던 정도전을 해친 난이다.

이방원은 이보다 앞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정몽주에게 철퇴를 휘둘러 선죽교를 붉은 피로 물들게 했고, 훗날 왕권강화를 명분으로 처남들까지 죽이는 비정한 잔인성을 숨기지 않았다.

소인배들이나 이해다툼으로 즐기는 파벌싸움에 희생된 이성계의 수족격인 정도전과 이방원의 수족격인 하륜은 한때 동문수학한 조선조 대표적인 성리학자들이면서도 서로가 으르렁거리며 상대가 죽어야 끝나는 살육전을 예사로이 행한 이들이다.

그들은 입 열어 혀끝으로나 인·의·예·지·신이 어찌니 읊고 떠들어대며 부당한 권력에 빌붙어 무서운 줄 모르고 배불(排佛)정책을 일삼은 학자로서의 비이성적 행태가 부르는 말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이는 생생한 역사의 교훈이다.

조선시대 승려는 천민취급 당해

조선왕조 법전(法典)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은 태조 초기, 왕명으로 정도전과 하륜 등 학자들에 의해 정종대를 지나 태종 때 엮어져 나온다. 당연히 유학을 치국의 근본이념으로 삼은 까닭에, 국무를 처리하는 육조(六曹)의 법령에서부터 왕실 규범이며 사대부(士大夫 : 관료, 지식계급)의 행실 및 관·혼·상·제의 생활관습에 이르기까지 유학을 숭상하는 법조항들로 엮어져 있다.

반면 불교는 억불과 박해 차원이 아닌 ‘말살시켜버리겠다’는 지배계층의 악정(惡政) 의지가 『경국대전』 곳곳에 엿보인다. 그 허다한 대목 가운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 ‘위선적 학문의 허구성이 한민족의 동질성

마저 의심케 하는 야만스러운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사대부 가문의 여인이 절에 가면 마땅히 곤장 백대로써 다스린다.” 하였고, “머리 깎고 중이 되려면 예조(禮曹)에 세금 150필을 바쳐야 한다.” 했으며 “백정, 상인, 장인, 소리꾼, 의원 …” 등을 8대 천업(賤業)에 종사하는 천민으로 분류하며, 무식하게도 여기에 불도를 닦는다는 이유로 ‘중(僧)’ 이라고 집어넣어 천신의 대상으로 삼고자 법전에 명문화시켰다.

세종 때는 승려의 도성(都城) 출입마저 금지시켰고 배불(排佛)이 가장 극심했던 성종, 연산군, 중종 때에는 원각사를 기방(妓房)으로 만들고 비구니스님들을 관청의 노비로 만들면서, 도성 안의 사찰은 모두 폐쇄하고 관가로 만들었다.

사찰의 토지는 모조리 관부(官府)에 몰수하여 향교에 나누어주었는가 하면, 성벽쌓기, 운하공사 등 각종 국가 토목공사에 승려들을 죄인 다루듯이 강제 동원시켜 무보수 부역케 하였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국

법’을 들먹여 환속하게 하였다.

인(仁)과 의(義)로 가르치는 학문을 근본으로 삼은, 유학을 국시로 한 왕조가 저지른 모순이자 이율배반적 행위와 그 무도함을 들자면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악정으로 말하자면, 굴절된 현대사에 있어 권력욕에 눈 먼 신군부가 총칼로써 헌정질서를 더럽힌, 80년 12·12 쿠데타 과정에서, 불교계가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부당한 권력의 힘으로 국민의 군대인 군인들을 사찰에 난입시켜 무법지대를 만든 10·27법난을 상기시키는 가혹한 역불탄압이었다.

배불은 민족 종교역할 저버린 댓가

종교도 인간이 행하는 영역이나 무상한 세월과 오가는 시절 따라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다. 하지만, 특정 지배이념으로 다스리는 왕조 국가 체제



에서, 압살을 목적으로 오백 년을 내리 두고 무자비한 억압과 탄압을 자행한 예는, 세계 종교사에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은 것은 민족의 심성에 깃든 저력의 불교가 아니면 이미 오래 전에 이 땅에서 사라졌을 일이다.

민족 종교로서 그 역할을 저버린, 그릇된 의식을 지닌 일부 승려들이 지배권력과 야합하여 명리(名利)를 구한 대가의 그 양화(殃禍)는 자그마치 오백년 지나긴 세월을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별 것도 아닌, 학문 수준의 유학에 떠밀려 쫓겨나, 깊이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하다시피 묻혀 기도와 빠져린 참회로써 지난 날 권력에 빌붙어 이양(利養)을 쫓은 과보(果報)의 참담함을 겪었기에, 절치부심하며 인고(忍苦)의 세월을 묵묵히 감내한 조선불교이었다.

남존여비 사상은 많은 병폐 낳아
 불교는 고려말 수행집단으로서 혼탁한 모습을 보인 잘못을 알고, 피눈물로 참회하며 잘못된 만큼 지나긴

쓰라린 박해와 아픔을 견뎌야 했다. 이들은 글 읽는 선비네, 점잖은 양반이네 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허세를 부리면서 불교를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며 사찰은 먹고 즐기는 객주집으로 삼았다. 승려는 자기들에게 필요한 노동력이나 채우는 비천한 노비로 여겼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유학이 가르치고 행하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인습이자 관습상 권세와 부에 따라 처첩을 몇 명이고 거느리는, 실제 일부 다처제(一夫多妻制) 제도였고, 때문에 득세하는 양반가의 반반하게 생긴 여종들은 언제든지 그 집 양반의 음욕을 채우는 성적 도구로 묵인되는 그릇된 사회구조 배경에서 생겨난 것이 서자(庶子), 서얼출신이었다. 서얼들이 신분 한계의 높은 벽에 좌절하며, 한 많은 원한을 품고 술하게 죽어간 것도, 근본적으로 인간 차별을 합리화하는 술책인 반상(班常)제도의 나쁜 폐습에 저항하는 격렬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비로자나불 모신 전각은 ‘정각의 세계’ 상징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적광전(寂光殿)과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주불로 모시는 전각에는 대적광전(大寂光殿)·적광전(寂光殿)·대광명전(大光明殿)·화엄전(華嚴殿)·비로전(毘盧殿) 등이 있으며, 화엄경(華嚴經)에 의한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를 상징한다. 연화장 세계란 바로 깨달음, 정각(正覺)의 세계를 의미한다.

화엄경(華嚴經)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 3·7일인 21일 동안 설하신 경전이다. 화엄경의 중심이 되는 부처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은 ‘바이로차나(vairocana)’을 음역한 것으로 고대 인도어로 빛 또는 태양(太陽)이라는 뜻이며, 밀교(密敎)에서는 대일여래(大日如來)라고 한다.

화엄경에서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은 『광명편조(光明遍照)』라고 하여 태양과 같이 삼계(三界)을 두루 밝게 비추는 부처님이다.

여기서 광명편조(光明遍照)란 깨달음의 본질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비

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진리(眞理)를 상징하는 법신불(法身佛)이라 한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진리의 세계, 즉 깨달음의 경계는 항상 고요하며 광명이 가득 차 있다 하여 『상적광토(常寂光土)』라 하는데 여기에서 적광전(寂光殿)이란 명칭이 유래되었다.

사찰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主佛)로 모실 때는 적광전(寂光殿)이라 하지 않고 격을 높여 대적광전(大寂光殿) 또는 광명편조(光明遍照)의 특성에 따라 대광명전(大光明殿)이라 한다.

사찰의 주불전이 아닌 부속 전각일 경우에는 비로전(毘盧殿) 또는 소의경전인 화엄경(華嚴經)에 의거하여 화엄전(華嚴殿)이라 한다. 유교문화권에서는 기휘(忌諱) 또는 피휘(避諱)라고 하여 직접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호(號)를 쓰거나 자(字)을 대신하여 불렀다.

이런 같은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 전각명(殿閣名)을 부처의 명호나 경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찰에서 상대적으로 그 전각의 위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천 용문사나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위봉산성에 있는 위봉사(威鳳寺)와 같이 보광명전(寶光明殿)이라고도 한다.

칠처구회례(七處九會禮)라 하여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지상설법과 천상설법이 설해지는 일곱 장소(七處)에서 아홉 차례(九會)에 걸쳐 39품 설법의 회상에 모인 모든 불보살과 선지식에게 예배드리는 예불의식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광명전이 세 번 나온 것에서 연유한다.

비로자나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삼신불(三身佛)이다. 삼신불(三身佛)은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정법신(淸淨法身) 비로자나불과 원만보신(圓滿報身) 노사나불(盧舍那佛), 천백억화신(千百億化身) 석가모니불이라고 한다.



부석사 무량수전

법신이란 ‘진리 그 자체’ 또는 ‘근본자리’로서 그 어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비로자나불로 상징하며, 보신이란 수행할 때 세운 원력과 수행의 결과로 한량없는 공덕의 몸을 받은 부처를 말한다.

이 자수용(自受用) 보신불을 노사나불이라 한다. 또한 서원을 세우고 수행하여 부처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미타불과 약사여래불도 보신불에 해당한다. 화신은 응신(應身) 또는 응화신(應化身)이라고도 한다.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중생들 속에서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표적이다.

삼신불(三身佛)은 별도의 부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석가모



니부처님의 경우 적멸(寂滅)에 드셨다는 측면에서 보면 법신이며, 과거 수많은 세월에 걸쳐 수행한 결과로 성불하여 그 공덕을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보신이며, 중생들을 위해 몸을 나투셨다는 측면에서 보면 화신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미타불(阿彌陀佛)과 무량수전(無量壽殿)

아미타불(阿彌陀佛)을 주불로 모시는 전각에는 무량수전(無量壽殿)·극락전(極樂殿)·수광전(壽光殿)·미타전(彌陀殿) 등이 있으며, 아미타경(阿彌陀經)에 의한 극락정토(極樂淨土)를 상징한다.

아미타불은 아미타-바하와 아미타-유스의 두 가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미타-바하는 무량광(無量光)으로, 아미타-유스는 무량수(無量壽)로 번역된다. 이 중에서 공통되는 ‘아미타’를 따와서 부처의 명호로 삼은 것이 아미타불이다. 따라서 아미타불은 한량없는 광명인 ‘무량광(無量光)’과 한량없는 수명인 ‘무량수(無量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서삼경(四書三經) 중의 하나인 서경(書經)에는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의 오복(五福)이 나오는데 중국문화권에서는 그중에서 ‘수(壽)’를 으뜸으로 쳤다. 이런 영향을 받은 까닭 때문인지 ‘무량수(無量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무량수전(無量壽殿)’이란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다.

무량수전(無量壽殿)은 수광전(壽光殿)이라고도 한다. 수광전(壽光殿)은 무량수

(無量壽)와 무량광(無量光)에서 ‘수(壽)와 ‘광(光)을 합하여 붙인 이름이다. 대표적인 전각은 월정사 수광전이나 불국사 석굴암의 수광전이 있다.

무량수전(無量壽殿)은 사찰의 부속 전각일 경우에 ‘미타전(彌陀殿)이라고도 한다. 이는 ‘아미타(阿彌陀)에서 ‘아(阿)자를 생략한 것이다.

중국의 한자문화권에서는 불교와 관련한 용어 가운데 ‘아(阿)자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라한(阿羅漢)을 ‘나한(羅漢)으로 축약하거나 수행자들이 머무는 장소를 뜻하는 ‘아란야(阿蘭若)를 ‘난야(蘭若)로 생략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문제는 ‘아(阿)자를 생략함으로써 본래의 뜻과는 정반대의 뜻이 되는 것에 있다. ‘아(阿)자는 인도 말에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미타(阿彌陀)가 ‘한량없는’이라는 뜻인 반면에 ‘아(阿)자를 생략한 ‘미타(彌陀)는 ‘한량 있는’이란 뜻으로 의미가 달라진다.

또한 ‘아라한(阿羅漢)역시 ‘나한(羅漢)으로 바뀌면서 ‘번뇌 없는’이란 뜻이 ‘번뇌 있는’ 뜻으로 의미가 달라지지만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아(阿)자가 생략한 채로 사용하고 있다.

사찰의 부속 전각일 경우에 ‘극락전(極樂殿)이라 한다. 극락(極樂)이란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로서 지극히 안락하고 걱정이 없는 행복한 세상으로 극락세계라고도 한다.

극락정토(極樂淨土)의 상징성과 극락세계에 왕생(往生)하기를 희구하는 중생들의 발원이 담겨있어 ‘극락전(極樂殿)이라고 한다.

무량수경(無量壽經)에 의하면, 『아미타불은 출가 이전에 본래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발심(發心) 출가하여 이름을 법장(法藏)이라 하였다.

세자재왕불(世自在王佛)에게 48대원(四十八大願)을 세우고 오랜 세월의 수행 끝에 성불(成佛)하여, 현재의 아미타불이 되어 서방정토(西方淨土)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며, 항상 법(法)을 전하고 있다』고 한다.

법장(法藏)의 48대원(四十八大願)에 의해 극락(極樂)이 이루어졌다. 48대원 가운데 하나인 ‘십념왕생(十念往生)’은 5역죄(逆罪)를 지은 이라도 죽음에 이르러 지극한 정성으로 열 번만 ‘나무아미타불(阿彌陀佛)’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왕생(往生)한다는 것으로 미타신앙(彌陀信仰)의 중요한 요소이다.

법장(法藏)의 대원(大願)에 의해 이루어진 극락(極樂)은 ‘지극히 안락하고 걱정이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 하여 달리 ‘안양(安養)’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여러 곳에 안양(安養)이라는 지명이 많이 있는데 이는 아미타불(阿彌陀佛)과의 인연이 있었던 곳으로 생각하면 된다.

극락세계의 가장 뛰어난 점은 ‘불퇴전(不退轉)’에 있다. 아미타경(阿彌陀經)에는 ‘극락국토중생생자개시아비발치’라고 하여 ‘극락국토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물러섬이 없다’고 하였다.

극락(極樂)은 ‘지극히 안락하고 걱정이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최상의 수행환경을 갖추어 깨달음에 이르기 까지 물러섬이 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아미타불의 원력을 빌어 극락에 왕생(往生)하기를 발원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건봉사 모습. 강원도 고성 의 민통선 안에 자리하고 있어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뒤 역대 왕들의 위패를 봉안하는 어실각(御室閣)을 짓게 하고 전답을 내렸으며, 친필로 동참문을 써서 하사하였다. 어실각이 생김에 따라 건봉사는 조선 말까지 권력자나 유생들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는 수행처로 전승될 수 있었다. 예종도 즉위와 동시에 교지를 내려 건봉사를 원당으로 삼았다.

건봉사는 억불정책으로 불교계가 크게 위축되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왕실

의 적극적인 보살핌 속에 사세를 크게 확장하면서 대웅전과 팔상전, 관음전 등 모두 766칸을 보유한 국내 4대 사찰로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호국불교의 본거지이었으며 1605년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후 왜군이 약탈해 간 부처님 치아사리를 일본에서 되찾아 와서 이 절에 봉안하면서 건봉사는 불교 최고의 성보(聖寶)가 되었다. 이 치아사리는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받아 온 것으로 통도사에 봉안하였던 것을 임진왜란 때 왜병이 훔쳐간 것이었다.

경종 14년(1724년)에 적멸보궁 뒤쪽에 석가모니 진신치아사리를 모신 탐을 건립하는 등 이후에도 중건을 거듭하던 건봉사는 안타깝게도 한국전쟁 때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후 민통선 안에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었다가 다행히 1992년 여름부터 출입이 가능해져서 옛 불교성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건봉사 터는 크게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일찍부터 건봉사의 중심을 이루었던 대웅전 지역, 불이문을 들어서



1



2



3

1 건봉사 대웅전 2 건봉사 적멸보궁의 사리탑 3 건봉사 입구의 불이문

면 '나무아미타불' 이라고 새겨진 석주 왼쪽으로 펼쳐졌던 극락전 지역, 영지(影池)를 지나면 바로 나타나는 낙서암 지역, 낙서암 지역 위쪽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팔상전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대별된다. 낙서암 지역이나 팔상전 지역은 예전의 절터만 남아 있다. 건봉사는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8과를 비롯해 보물 제1336호로 지정된 능파교와 보물 제1337호인 육송정 홍교, 도문 화재자료 제35호인 불이문, 사명대사 기적비, 세존양아탑비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건봉사는 1982년 지방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됐다.

건봉사에는 사명대사가 모셔 놓은 진신 사리를 봉안한 진신사리탑이 있고, 이 탑을 참배하기 위한 적멸보궁이 있다. 높이 3.45m인 진신사리탑은 한 변이 1.8m인 사각형의 지대석 위에 팔각의 모양을 이루며 우뚝 서있다. 능파교(凌波橋)는 대웅전 지역과 극락전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무지개 모양의 다리로 축

조연대와 건립자 등을 알려주는 비석을 갖추고 있어 홍예교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현재의 다리 폭은 3m, 길이는 14.3m, 높이는 5.4m로서, 다리 밑쪽에서 올려다보는 둥근 모양의 홍예가 아름답다.

‘능파’란 흔히 가볍고도 우아한 미인의 걸음걸이를 형용하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고해(苦海)의 파도를 모두 헤치고 이제 해탈의 부처님 세계로 건너간다는 의미에서 능파교라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건봉사 전체가람의 정문에 해당하는 불이문(不二門)은 1920년에 건립된 것으로 6·25전쟁의 전화를 면한 유일한 건물이다.

특히 고성군은 팔상전과 대웅전 등 16개 건물을 복원 정비하고 진입로와 화장실, 사명대사기념관 등을 복원했으며 공양간과 설법전, 극락전, 요사채, 사성전 등 건물 15동을 복원해 불교 문화재의 보고로 만들고 있다.

건봉사 가는 길

승용차 속초에서 7번 국도를 타고 간성을 지나 대대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 진부령 가는 길이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다보면 우측으로 금강산 건봉사라는 팻말이 붙어있다. 여기서 우회전 한 뒤 조그만 다리를 건너 오른쪽으로 도로를 따라가면 된다.

하나의 등불로 무명의 세계 밝힌다



불기 2557년 5월 17일은 부처님 오신날이다. 2557년 전,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직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일념으로 뼈를 깎는 고통에 굴하지 않고 고행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정각(正覺)을 이루셨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사찰을 찾아가 정성껏 만든 등을 밝히고 깨달음을 얻기를 서원(誓願)하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BC 563년 음력 4월 8일 해뜰 무렵,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서 복인도 카필라 왕국의 왕 슈도다나와 마야부인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물질적 풍요속에서도 인생에서 겪는 괴로움의 본질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셨다. 이에 29세가 되던 해, 고(苦)의 본질 추구

와 해탈(解脫)을 구하고자, 처자와 왕자의 지위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다. 그리고 엄청난 고행 속에서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45년간의 긴 세월 동안 설법과 교화를 계속한 석가모니는 80세의 고령에 이르렀다. 여러 차례의 중병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멈추지 않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는 마침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여러 가지 유언을 말씀하셨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하여 수행하라”라는 것이다.

쿠시나가라의 숲에 이르렀을 때, 심한 식중독을 일으켜 쇠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침내 “제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말하리라. 제행(諸行)은 필히 멀하여 없어지는 무상법(無常法)이니라. 그대들은 중단 없이 정진하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이니라”고 설한 후 눈을 감았다.

그 후 불자들은 음력 4월 8일이 되면 정성껏 마련한 등(燈)을 달고 세속의 때를 벗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관욕을 실시하면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있다.

험한 세상의 길잡이, 연등

연등(燃燈)은 번뇌(煩惱)와 무지로 가득찬 무명(無明)의 세계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한다.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고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고자 등을 밝히는 연등 공양에 대해서 불교 경전에서는 지혜, 해탈, 자비, 선행 등을 의미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무명의 세계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을 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불자는 어둡고 험한 이 세상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그 길목을 지켜주는 충실한 안내자로서의 등불이 되겠다는 서원으로 이웃과 세계를 먼저 위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할 것이다.

관욕으로 세속의 인연을 씻는다

관욕이란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린다는 뜻으로 관불(灌佛), 욕불(浴佛), 관정(灌頂)이라고도 한다. 관욕의식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을 때 아홉 마리 용이 나타나 오색향수로 부처님을 씻어 주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오늘날에도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각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다.

관욕의식은 우리 스스로가 모든 탐욕의 때를 씻는 것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더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깨끗한 지혜를 성취하며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원을 세우며 봉행하는 엄숙한 의식이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관욕을 통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을 없애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왕사 소식

4월 19일 제24회 백고좌법회 입재



제24회 백고좌법회가 지난 4월 19일(음력 3월 10일 신장재일) 익산 사자암 주지 항봉스님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7월 27일까지 100일 동안 계속됩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백고좌법회에서는 불교 경전 전반을 아우르는 '경율론 삼장 대설법회'로 전국의 고승대덕 100분을 모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간 법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초청하고 싶은 스님들을 적극 추천하시면 법사로 모실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41회 1천명 초청 경로잔치 한마당



법왕사에서는 오는 5월 11일 토요일 법왕사 광장에서 1천명 초청 경로잔치 한마당을 펼칩니다.

매년 봄기운으로 한 차례씩 개최하는 경로잔치는 인근 노인들의 큰 잔치이며 법왕사 불자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과 선물, 공연으로 흥겨운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잔치에서도 찬조출연이나 후원품 보시를 원하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사 입구에 간판석 조성



법왕사 입구에 거대한 자연석으로 만든 간판석 3기를 조성, 도량을 찾는 불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당 단청, 각령단 삼존불 닷집 완공



본당 단청과 정무 대종사 각령단, 삼존불 닷집 불사가 회향하였습니다. 약 한 달간의 불사 끝에 완공한 단청과 닷집은 불당을 더욱 아름답게 장엄하여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드러내고 있으며 기도하는 불자들에게는 더욱 깊은 신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법왕사 소식

매월 양력 초하루 법회 봉행

법왕사는 계사년을 맞이하여 매월 양력 초하루, 음력 초하루 법회를 봉행합니다. 전통적으로 사중에서는 음력을 기준으로 불공을 올리고 법회를 해 왔는데 현대사회에 맞게 양력 초하루에도 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4월 4일 연화사 이동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4월 4일 불자 100여명이 경남 통영 연화도의 관음도량 연화사에서 이동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연화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큰스님께서 창건하신 도량으로 연화도의 빼어난 풍경과 잘 어우러진 관음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



법왕사에서는 법우님들의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을 위해 다도, 심리사주학, 풍수지리, 바리스타, 노래교실, 서각, 캘리그라피(손글씨), 예쁜 글씨(POP), 요가, 민요, 설장구, 가락장구(경희국악원장 최경희)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2013년 1학기 불교대학 기초교리반 개강

법왕사는 4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월 과정의 불교대학 기초교리반을 개강합니다. 주지 실상스님 직강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불자님들이 불교의 기초교리와 예절, 상식 등에 대해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이며 수강료는 3개월 10만원입니다.

104위 만불전 신중탱화 불사



법왕사는 만불전 뒤편 104위 신중탱화 불사를 봉행합니다. 오는 6월 23일 봉안예정이며 현재 접수중입니다. 신중탱화는 특별히 자녀들의 학업 성취에 큰 공덕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학부모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4위 신중탱화 불사에 이름을 영원히 남기십시오.

백고좌법회 소식 각 언론에 일제히 보도

▲ 매일신문
영남일보 ▶

지난 4월 19일 입재한 법왕사 제24회 백고좌 법회가 각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지역신문인 영남일보에는 4월 18일자 종교면 머릿기사로, 매일신문에는 4월 20일 16면에, 또한 불교방송과 불교TV에도 각각 보도되어 인기 있는 법회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법왕사 게시판

● 새롭게 법당인등 모신 분

754 김옥희	755 서미경	756 서민관
757 박채진	758 서미희	759 박주연
760 박준혁	761 서수민	762 류현필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법당 꽃등 다신 분

18 임성녀	19 박수연	20 김용희
21 정규화	22 장태순	23 이만규
24 최경술	25 황분월	26 백복순
27 백복달	28 이분연	29 윤말줄
30 장말순	31 서선화	32 장석순
33 박말순	34 정금화	35 김순득

● 새롭게 법당 일년등 다신 분(만불전)

205 김찬호	206 유순애	207 김재훈
208 김오현	209 김수정	210 최효영
211 김필선	212 박유현	213 성은숙
214 윤기동	215 김기현	216 신지원
217 최창덕	218 김치희	219 구승우
220 허영철	221 김상석	222 손경상
223 조영부	224 김옥희	225 강봉호
226 이상훈	227 신구자	228 이승재
229 신종호	230 박영승	231 성정연
232 박정순	233 장옥도	234 우성국
235 송주상	236 권종오	237 권태모
238 박말순	239 김병태	240 김하나
241 이석진	242 이창한	243 서명찬
244 황하기	245 김재현	246 박태순
247 남상호	248 유종건	249 신동식
250 조준승	251 정연수	252 김현환
253 이용욱	254 김영주	255 김종오
256 김대곤	257 임성녀	258 백창희
259 김옥란	260 박해창	261 허대구
262 신 숙	263 전송자	264 우진태
265 김영달	266 유종혁	268 남호을
269 박일수	270 심귀복	271 번기석
272 이명발	273 박해수	274 강현태
275 김광영	276 김수권	277 이효주
278 권오성	279 송용순	280 손정순
281 이해욱	282 김만기	283 김만기

284 김영국	285 김종구	286 이종출
287 박익창	288 방형욱	289 한정수
290 임분자	291 최중수	292 이덕희
293 유종건	294 최정자	295 이재원
296 이영자	297 강문철	298 권병기
299 서영희	300 장현목	301 박성용
302 윤귀웅	303 장철영	304 윤병재
305 박정명	306 박광자	307 조특래
308 최용길	310 안명희	311 원지심
312 곽연향	303 임완택	314 이상욱
315 이상호	316 정근순	317 김몽원
318 백상우	319 백재술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본당 대등 다신 분

1 박경영 2 류윤만

● 새롭게 본당 일년등 다신 분

1 최재훈	2 김동태	3 김봉조
4 우종원	5 김종열	6 송승호
7 박진근	8 심규암	9 이종만
10 남인식	11 이승구	12 여규영
13 배정호	14 배일한	

● 새롭게 팔각(단청)등 다신 분

국회의원 주호영 조은불교(김수열, 권봉자)
 단청(조창진) 우성주택건설(주) 권오성
 청구도사학(권오섭) 정원전설(정안식)

● 새롭게 초파일 대등 다신 분

죽산장학회(최이득)	장어와 미꾸라지(유종건)
가창농협조합장	화진전기(박종환)
남경정공(하경영)	세일정유(최병운)
파라다이스한증맥(정현숙)	대일승복사(이성란)
경산삼숫가매(장우성)	자유기획(정활수)
다산미디어(강영도)	금강철강(오진환)
국제갤러리(김선유)	부창떡집(배해동)
일심회 회원일동	이동희 시의원
수성경찰서장(배몽길)	수성구청장(이진훈)

법왕사 계시판

청송약수삼계탕(민병철) BBS라디오 방송국
 보현신탁 직원일동 삼성고속(최영달)
 현대건설(주) 신천좌안 도로현장 소장외 직원일동
 창신중기(우승복, 우재균) 원공업사(강기찬)
 소원양초(배학돌) 광진크레인(손말두)
 동양가스텍(박승태) 신진정밀(김기수)

새롭게 평생위패 모신 분

간염부후인 성산 배公 종호 영가(배재훈 복위)
 간염부후인 밀양 박公 유식 영가(박영래 복위)
 간동생후인 순천 김氏 영권 영가(김성권 복위)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새롭게 영가등 다신분

유기상 복위 간조조부후인 강릉 유公 재원 영가
 간조조모유인 남편 문氏 복죽 영가
 간조부후인 강릉 유公 석근 영가
 간조모유인 연일 정氏 윤순 영가
 간염부후인 강릉 유公 영철 영가
 간자모유인 양전 이氏 덕정 영가
 류지훈 복위 간염부후인 진주 유公 승우 영가
 문충덕 복위 간염부후인 남평 문公 석동 영가
 간자모유인 나주 나氏 영자 영가
 김재훈 복위 간자모유인 안동 권氏 선오 영가
 박경록 복위 간염부후인 순천 박公 종철 영가
 간형님후인 순천 박公 성노 영가
 간형님후인 순천 박公 점노 영가
 간누나유인 밀양 박公 병조 영가
 박경영 복위 간염부후인 청주 한氏 옥련 영가
 간자모유인 문화 류公 명덕 영가
 유명옥 복위 간조부후인 성주 여氏 순이 영가
 간조모유인 김해 김公 달석 영가
 김영홍 복위 간염부후인 정선 전氏 정숙 영가
 간자모유인 밀양 박氏 영가
 정연국 복위 간조부후인 오천 정公 탁영 영가
 간조모유인 영양 이氏 동선 영가
 이인식 복위 간염부후인 영양 이公 호련 영가
 간자모유인 월성 손氏 신동 영가
 정연국 복위 간염부후인 오천 정公 문화 영가
 간중부후인 오천 정公 남화 영가
 간고모유인 오천 정氏 귀난 영가

이창수 복위 간형님후인 성산 이公 장수 영가
 박춘희 복위 간남편후인 청도 김公 문열 영가
 신용준 복위 간염부후인 거창 신公 상범 영가
 신유리 복위 간염부후인 거창 신公 용광 영가
 서정연 복위 간염부후인 달성 서公 인석 영가
 간자모유인 순천 김氏 근림 영가
 장옥도 복위 간조부후인 능성 구公 연서 영가
 간염부후인 능성 구公 철서 영가
 간자모유인 김해 김氏 복선 영가
 간남편후인 능성 구公 영희 영가
 김영근 복위 간염부후인 김해 김公 진태 영가
 간삼촌후인 김해 김公 현태 영가
 이광순 복위 간염부후인 재령 이公 태호 영가
 간자모유인 정氏 점연 영가
 박해진 복위 간장인후인 수원 백公 충기 영가
 간조모유인 성주 이氏 수년 영가
 이복순 복위 간염부후인 전주 이公 태경 영가
 간자모유인 파평 윤氏 계문 영가
 김옥란복위 간염부후인 김해 김公 무삼 영가
 간남편후인 수원 백公 종규 영가
 권오성복위 간염부후인 안동 권公 만술 영가
 간자모유인 경주 최氏 순악 영가

사보 도움 주신 분

최옥남 300부 마하아나합창단 100부
 정시영 300부 권영숙 50부
 제주도 성지순례 200부

법보시 하신 분

간전정숙 영가 법화경 30권
 간배종호 영가 법화경 30권
 노기주 칠순 법화경 30권

식목일 은행나무 시주하신 분

신명균 심규암 심혜정 김정석

축하드립니다

- ◎ 100일기도 회향 김혜자
- ◎ 생일축원
홍공덕심 한명한 조분홍 이진욱
- ◎ 사업법창 김기수(신진정밀)
- ◎ 정시영 김예슬 법우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법왕사 게시판

● 감사드립니다

- **공양미 보시하신 분(1포 20kg)**
김주현 1포 심보현 1포 신용준 1포
ㄸ진정숙 영가 3포 ㄸ김상수 영가 4포
김우영 1포 ㄸ문석동 영가 4포
 - **떡공양 하신 분**
김해자 권정화 여택동 서미희 김주현
곽재혁 정서현 정시영 김상수 강소남
권혁일 백월순 이태화 백해영
김남숙(백설기 한말)
 - **과일공양 하신 분**
서미경 김옥희 이정성(세광하이테크)
 - **식품공양 하신 분**
신현수
 - **연화도 순례 공양 하신 분**
- 밥공양 구실상화 4만원
- 공양물 하경용(남경정공)
- 떡공양 김인태
- 우유공양 김분용
 - **백고자 법회 축하금 주신 분**
정광춘 10만원 정연국 10만원
김상수 5만원 신장희 20만원
 - **백고자 법회 화환주신 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난화분
 - **원불봉안 떡공양 하신 분**
권혁일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신현수 신지원
 - **신중탱화 불단유리 불사하신 분**
안준영 김옥희
 - **법당상드리에(본당등) 다신 분**
윤암 양생채(고정수)
 - **차공양 올리신 분**
고정수 300만원
-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 신중탱화 동참하신 분

한혁식	백대행심	이보단화	권영철	조한숙
권세호	권치호	김무균	이준호	이상열
이정애	이현우	이성은	이동연	이동하
최금부	정승우	권팔수	최현임	주창관
이현우	정용임	조동선	김익균	이영호

권주영	이주향	이재홍	김순자	김성훈
이태화	이준목	김의환	박재분	이원석
이종유				

● 왕생극락 하옵소서

- 이병곤 법우님의 ㄸ자모유인 연일 정氏 점연 영가님의 초재가 3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배재훈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성산 배公 중호 영가님의 초재가 3월 31일에 있었습니다.
 - 전서현 법우님의 ㄸ자모유인 평해 황氏 미정 영가님의 초재가 4월 5일에 있었습니다.
 - 김영권 법우님의 ㄸ자모유인 밀양 박氏 옥선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5일에 있었습니다.
 - 박영대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밀양 박公 유식 영가님의 초재가 4월 6일에 있었습니다.
 - 김선동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김해 김公 석만 영가님의 막재가 4월 7일에 있었습니다.
 - 곽병한 법우님의 ㄸ자모유인 달성 서氏 동석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조소경 법우님의 ㄸ자모유인 여흥 민氏 해순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김영근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김해 김公 진태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김동주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김해 김公 상수 영가님의 막재가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정원일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연일 정公 준식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17일에 있었습니다.
 - 박민식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밀양 박公 순용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18일에 있었습니다.
 - 김영홍 법우님의 ㄸ자모유인 정선 전氏 정숙 영가님의 막재가 4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박병용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밀양 박公 희태 영가님의 막재가 4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진종원 법우님의 ㄸ누나유인 밀양 진氏 은지 영가님의 기제사가 4월 22일에 있었습니다.
 - 문충복 법우님의 ㄸ엄부후인 남평 문公 석동 영가님의 막재가 4월 28일에 있었습니다.
 - 이선옥 법우님의 상세선망부모일체 영가천도 재가 4월 9일에 있었습니다.
 - 전숙환 법우님의 상세선망부모일체 영가천도 재가 4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장재혁 법우님의 상세선망부모일체 영가천도 재가 4월 19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법왕사 게시판

CMS 접수하신 분(~3/25)

인 등	오창혁 1만원	신정욱 4만5천원
	류윤희 1만 5천원	정순희 2만원
	장옥주 1만원	최오겸 1만원
초록, 축원	김수라 3만원	이영희 4만원
원불봉안	백미숙 1만원	백동근 1만원
	백미경 1만원	김승한 1만원
기 타	차상근 5천원	심영선 1만 5천원

법왕사 계좌번호

-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해오름 소식

봉사활동 하신 분

4월 14일 작은행복봉사단 8명 봉사활동



4월 16일 참사랑봉사단 5명 봉사활동



4월 21일 녹색봉사단 30명 봉사활동



요양원 소식

4월 11일 수성구 보건소 연계
치매관리사업 행사 실시



4월 17일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법왕사와 인연 있는 불자 어르신들이 입소하면 각종 혜택을 추가로 드릴 예정이오니 주위에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오름 게시판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3월)

◎ 수입내역

이호동 5천원	김기수 2만원	권오성 1만원
김봉숙 5천원	우포정사 1만원	구정대 2만원
강태출 5천원	오난옥 5천원	최경순 1만원
김순태 1만원	박태숙 5천원	이병희 1만원
권봉자 3만원	김민주 1만원	박창목 5천원
김순란 3만원	성외련 2만원	최복례 1만원
우포정사 3만원	신구자 5천원	고연숙 1만원
오금옥 1만원	이현우 1만원	조영석 1만원
정활수 3만원	박대희 5천원	김유진 1만원
박학순 1만원	임상덕 1만원	이남희 1만원
이은주 2만원	김정희 1만원	김임태 5천원
안상준 2만원	문정애 2만원	윤순희 1만원
정시영 1만원	강소남 5천원	여축동 1만원
김미옥 2만원	홍세림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류윤만 5천원	김수라 1만원	홍새미 1만원
유명옥 1만원	노귀자 5천원	최분규 1만원
조규인 1만원	김기덕 2만원	이정옥 1만원
양니영 5천원	이원래 1만원	이임숙 2만원
정무시 1만원	정광춘 5만원	사공관 1만원
임익균 1만원	김정임 1만원	여축동 1만원
이점례 1만원	곽순복 2만원	권숙자 1만원
신혜경 5천원	채옥연 5천원	정민경 1만원
현영희 1만원	안명희 1만원	배수현 2만원
강선옥 1만원	강영도 2만원	황미선 2만원
신돈식 1만원	김진성 1만원	이정훈 1만원
현인숙 1만원	여택동 5천원	심종순 5천원
심규암 5천원	노수정 1만원	최학영 10만원
이경숙 5천원	김정자 5천원	최재훈 1만원
이종희 5천원	한규매 5천원	장우성 1만원
박종성 2만원	안경순 1만원	정연이 5천원
김정순 3만원	박경훈 3만원	장인숙 5천원
이인순 5천원	권계화 1만원	

합계 1,160,000원

◎ 지출내역

- CMS자동이체 수수료	66,000원
- 문자통지 수수료	1,000원

3월 총 사용내역 67,000원

잔액 1,093,000원 (2013년 3월말 기준)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양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물품 후원자

박수연 어르신 보호자

: 채송화 후원(현금10만원), 비타500 1Box

백복순 어르신 보호자: 박카스 1Box

장태순 어르신 보호자: 오렌지 10개

이분영 어르신 보호자

: 딸기 4팩, 장어와 미꾸라지 추어탕 10인분

씨포터즈봉사단: 음료수 1Box

녹색환경봉사단: 요플레 50개

최복례: 과자 set

정대영: 박카스 2Box

권혁만: 칫솔 20개, 음료수 2Box

양문갑: 휴지 30롤 2개, 각티슈 12개, 물티슈 24개, 비누 20개, 치약 25개, 가루세제 10kg 2개, 풍풍 4.5kg 2개, 샤프란 2통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원봉사자 모집

해오름요양원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진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능기부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해오름 게시판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 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전화를 주시면 입소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053)766-5767)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

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법당 일년등 및 초파일 연등 동참 받습니다

연등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찬탄하고 중생의 무명업장을 소멸하는 크나큰 공덕을 드러냅니다. 법왕사에서는 계사년 1년을 밝힐 법당 일년등, 가족등, 사업등, 영가등과 초파일 연등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수회동참하시어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주위에도 널리 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등 10만원 이상
-  영가등 5만원 이상
-  사업등 20만원 이상

* 동참금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사업등에는 사업체 이름을 넣어 드립니다.



계 / 좌 / 번 / 호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2013년 1학기 불교대학 기초교리반을 개강합니다

- 🌸 일 시 2013년 4월 29일 ~ 2013년 7월 15일(3개월 과정)
-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 등록비 3개월 10만원
- 🌸 지도법사 실상스님(주지스님), 영일스님
- ※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계속 모집중

* 법왕사 불교대학 기초교리 (경전) 수업 계획서

교육일정	강의내용	교육일정	강의내용
4월 29일	개강식 / 불자의 자세와 예절 / 불자의 기본자세	6월 10일	기도와 발원 / 가정에서의 신앙과 수행
5월 6일	사찰, 어떤곳인가 / 사찰의 의미 / 불상의 종류	6월 17일	한국불교의 역사
5월 13일	불교회화(탱화, 벽화 감로도)	6월 24일	대한불교 조계종도의 신앙과 수행활동
5월 20일	법구, 사리장엄과 복장물 / 불교조형물	7월 1일	천수경 반야심경
5월 27일	불교란 / 불교의 특징 삼보의 이해	7월 8일	성지순례(참나를 찾아서)
6월 3일	불자의 신앙과 수행 / 법회의 의미	7월 15일	수계식

-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



생활역학과 풍수지리반

- 강사 : 홍순영 선생님
- 약력 : 한국역학인총회고문
대한풍수학회회장
동양문화연구원원장



심리사주반

- 강사 : 서강호 선생님
- 약력 : 교육심리학석사
현대명리학교고문
현대명리학교육원원장



서각

- 강사 : 신임선 선생님
- 약력 :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동서단 이사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 시간 : 매주 화, 목
- 회비 : 3개월 이십만원(재료비 별도)



합창단

- 강사 : 정무시 선생님
- 약력 : 영남대학음악대학 동대학원 졸업
대구시립합창단원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회비 : 없음



사찰음식

- 강사 : 탄공스님 선생님
- 약력 : 전통사찰음식 연구회 회장 / KBS 한식 탐험대 출연
MBC 찾아라 맛있는 TV / KBS 인간극장 5부작 출연



법왕사 오시는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천대로→신천좌안도로→법왕사로 오시던 길이 공사로 인해 이용하실 수 없게 된 관계로 **신천대로→상동교→수성못오거리→용두교→법왕사**로 이용을 바랍니다.

가창방면에서 신천좌안도로를 이용해 오시는 법우님들은 **상동교**에서 **유턴**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 신천좌안 고가도로 완공시까지 네비게이션으로 '파동초등학교'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 물 놀 이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제24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 4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100일 동안 제24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 21일차
 5월 9일
 법문
 마가스님
 미타정사



● 31일차
 5월 19일
 법문
 지오스님
 범어사 교수사



● 99일차
 7월 26일
 불명수지
 보살계 수계 법회
 혜능스님
 전 해인사 올원장



● 100일차
 7월 27일
 회향법회
 불심 도문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 일시 : 2013년 4월 19일 ~ 7월 27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 백고좌법회 기간 중 영가전도 49재에 올릴 영가 접수를 받습니다.

※ 법회 전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 BTN TV - 10시 30분, 14시, 18시, 22시

- 자막 9시 36분, 11시 36분, 13시 30분, 13시 30분, 19시 45분

백고좌법회
 방송광고 시간표

※ BBS라디오 - 08시 52분, 10시 53분, 16시 48분, 22시 3분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3일차	5월 1일 困	현웅스님	육조사 선원장	23일차	5월 11일 困	성범스님	구봉선원
14일차	5월 2일 困	광명스님	비로선원 주지	24일차	5월 12일 困	영석스님	동국대 교수
15일차	5월 3일 窟	가산스님	원웅사	25일차	5월 13일 困	지운스님	자비정사
16일차	5월 4일 困	현정스님	대원사 주지	26일차	5월 14일 困	효상스님	(가칭)선홍사 주지
17일차	5월 5일 困	동휘스님	여래사	27일차	5월 15일 困	혜경스님	화담정사 조실
18일차	5월 6일 困	각현스님	연꽃마을 대표	28일차	5월 16일 困	해인스님	은해사 조실
19일차	5월 7일 困	원일스님	진명사 주지	29일차	5월 17일 窟	주지 실상스님	[부처님오신날]
20일차	5월 8일 困	일선스님	보림사	30일차	5월 18일 困	주지 실상스님	[부처님오신날]
21일차	5월 9일 困	마가스님	미타정사	31일차	5월 19일 困	지오스님	범어사 교수사
22일차	5월 10일 窟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32일차	5월 20일 困	용학스님	범어사 강주

계사년 매월 양력 초하루, 음력 초하루 법회 봉행합니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